주택거래 반등… 비관론 뚫고 매수세 살아날까

9월 매매 광주 29.7%·전남 65.0% 증가 인허가·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 회복 기대

렷한 회복 조짐을 보였다. 또 광주와 전남 모두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 물량 등이 급증해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 감을 불러 모은다.

택통계'를 분석한 결과, 광주는 인허가와 착 가했다.

가을 이사철을 맞아 지역 주택거래가 뚜 공, 준공 등 주택공급 선행지표가 반등하며 지역 주택건설경기 회복 기대를 키웠다.

통계를 보면 광주는 9월 주택 인허가가 785호로 1년 전(68호)에 비해 1054.4% 급증했다. 올해 누적(1~9월) 인허가도 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'2025년 9월 주 7742호로 전년 (3668호) 보다 111.1% 증

착공은 16호로 전년(8호)보다 늘었고, 4148호로 28.7% 감소했다. 준공은 572호로 전년 (589호) 과 비슷한 수 서 올해 571호로 순증했다.

공 7085호로 전년 대비 각 88.7%, 10.0% 감소한 모습을 보인 점은 장기적인 시장 불안 요인으로 꼽힌다.

전남도 인허가 986호로 전년 (218호) 대 비 352.3% 증가했다. 착공 지표의 경우 호 줄었지만, 전남은 2828호에서 2915호 570호로 전년(199호)에 비해 186.4% 늘 었지만, 누적 실적에서는 5815호에서

준공은 1007호로 전년(352호)보다 준을 유지했다. 분양은 지난해 9월 0호에 186.1% 늘었다. 누적 기준으로는 1만562 호에서 8884호를 기록하며 15.9% 줄어든 다만 1~9월 누적 기준 착공 443호, 준 모습을 보였다. 분양은 지난해 9월 0건에 서 올해 94건으로 순증했다.

은 늘었다.

광주는 1365호로 전월(1370호)보다 5 전년(1624건)보다 61.8% 증가했다. 로 87호 증가했다.

'악성 미분양'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

양 주택은 광주는 전월과 견줘 348호로 같 았고 전남은 2035호에서 2122호로 87호 많아졌다.

수요 측면에서는 양지역 모두 거래 회복 2만2911호로 집계됐다. 이 감지됐다. 광주의 9월 주택 매매거래는 1578건으로 전월(1217건)보다 29.7%, 2627건으로 전월(1592건) 대비 65.0%,

전월세 거래의 경우 광주 4039건, 전남 4020건으로 전월 대비 2.9%, 7.9% 각각 증가하며 회복 조짐을 보였다.

한편, 전국 주택 인허가는 4만6575호로 전월 대비 171.2% 늘었다. 착공은 83.6% 증가한 2만9936호, 분양은 37.3% 늘어난

준공은 10.5% 증가한 2만2117호였다.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762호로 전월 미분양 주택은 광주는 소폭 줄고, 전남 전년(1336건)보다 18.1% 늘었다. 전남은 대비 0.2% 증가했다. 다만 준공 후 미분양 (2만7248호)은 전월보다 1.2% 줄었다.

>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 대비 37.0% 증 가한 6만3365건으로 집계됐다. 전월세 거 래량은 23만745건로 전월 대비 7.9% 증가 했다. 송대웅 기자 sdw0918@gwangnam.co.kr

노란봉투법 현장 대응 총력 전남지노위, 하반기 워크숍

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정 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2025년 도 하반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 일 밝혔다.

내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 두고 열린 이번 워크숍에서는 국 내 노동법학계의 권위자인 강성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 노조법 2·3조 개정(노란봉투 법)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한 특 강 및 개정 노조법 시행 대비 노동 위원회 역할 기능 강화방안 토론 등이 진행됐다.

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전남북 제주지회 소속 공인노무사, 광주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70여명이 참석해 개정 노조법의 쟁점 및 노동위원회 역할 등에 대 해 토론했다.

전남지노위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개정 노조 법이 혼란 없이 현장에서 안정적 으로 구현되도록 철저히 준비, 지 역 노사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 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.

고동우 전남지노위원장은 "개정 노조법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 치"라며 "노사간 신뢰와 상생을 가 능하게 하는 대화 촉진법이자 노사 상생법이다"고 말했다.

이어 "지역 내 안정적인 노사관 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"고 덧붙였다. 송대웅 기자



'**맛있는 김치 맛보세요**' 지난 1일 광주시청 광장 일원에서 열린 제32회 광주김치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이 김치맛을 보며 판매 부스를 둘러 보고 있다. 최기남 기자 bluesky@gwangnam.co.kr

홈플러스, 새 주인 찾기 '잰걸음'

하렉스인포텍 등 참여…26일까지 최종입찰제안

기업회생절치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으로 알려졌다.

2일 홈플러스 등에 따르면 공개입찰 인 수 의향서(LOI) 접수 마감일인 지난달 주주인 MBK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31일 하렉스인포텍을 비롯해 복수 기업이 인수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번 공개입찰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된다. 은 접수된 인수 의향서와 자금조달, 사업 계획을 검토한 후, 의향서를 제출한 곳과 실시를 위한 비밀준수협약(NDA)을 체 결할 예정이다.

예비입찰일 이후에라도 최종 입찰일 이 전까지는 인수 의사를 표시하는 추가 매 수 희망자들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. 인수 후보자는 3일부터 21일까지 실사

를 진행한 후, 그 결과를 바탕으로 26일까 인수하기 위해 복수의 기업이 참여한 것 지최종입찰제안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게

> 매각은 구주 중 우선주를 제외하고 대 보통주 전량을 무상소각하고, 신주를 발 행해 제3자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추진

인수 의향서가 제출됨에 따라 10일로 예정된 회생 계획서 제출 기한은 공개입 찰 일정에 맞춰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 아졌다.

이번 국정감사에서 인수 후보로 거론된 농협은 인수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됐다.

송태영 기자 sty1235@gwangnam.co.kr

기아 스포티지, 美 IIHS 충돌평가 최고등급

현대차 아이오닉9도 선정

기아 스포티지와 현대차 아이오닉9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(IIHS)의 충 돌 안전 평가에서 '톱 세이프티 픽 플러 스'(TSP+) 등급을 받았다.

IIHS는 매년 미국 시장에 출시된 차량 을 대상으로 충돌 안전성과 예방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고 수준의 안전 성을 갖춘 차량에 TSP+를, 양호한 성적 을 거둔 차량에 TSP를 부여한다. 특히 올



해는 운전자 뒷좌석에 작은 체구의 여성 또는 12세 아동을 대표하는 더미 (인체 모 형)를 새롭게 배치했으며, 실제 충돌 사 고 시 뒷좌석 승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부상 유형을 반영해 평가 방식을 보

스포티지는 전방 충돌방지시스템과 전 조등 성능이 향상되면서 등급이 상향 조 정됐으며 아이오닉9는 전•측면 충돌, 전 방 충돌방지시스템 등 항목에서 최고 등

아울러 현대차 싼타크루즈는 소형 픽업 부문에서 TSP 등급을 획득했다.

이로써 현대차그룹이 올해 TSP+와 TSP 등급을 획득한 차종은 현대차 9개. 제네시스 5개, 기아 4개 등 총 18종으로 늘어났다. 정현아 기자 aura@

-___ 8 12 15 29 40 45

로또 1등 15명…당첨금 각 20억원

제1196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치한 2등은 94명으로 각 5323만원씩

'8, 12, 15, 29, 40, 45**'**가 1등 당첨번 호로 뽑혔다. 2등 보너스 번호는 '14'이다.

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

을,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837 명으로 176만원씩을 받는다.

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(고정 당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 첨금 5만원)은 15만3894명, 당첨번 첨자는 15명으로 20억163만원씩 받 호 3개가 일치한 5등(고정 당첨금 5000원)은 261만9093명이다.

연합뉴스

